



해미쉬 토드 대영도서관 아시아 도서수집 총책임자가 2016직지코리아 기획전 작품 등을 담은 전시도록을 들여보고 있다. 대영도서관 측은 특히 2016직지코리아에서 선보인 대형 조형물 '직지 파빌리온'과 '직지 팔레'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제공

영국 국립도서관인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이 '2016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전시 도록을 소장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9월 청주에서 열린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기획전인 '직지, 금빛 씨앗' 도록이 대영도서관에 공식 소장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도록은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를 주제로 한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 책자다. 직지코리아 기획전에 출품된 이들 작품은 직지를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금빛 씨앗으로 정의하고, 그 창조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해미쉬 토드(Hamish Todd) 대영도서관 아시아 도서수집 총책임자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인 직지를 재조명한 도록을 우리 전시공간에 간직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전 세계인에게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시문화재단에 소감을 전해왔다.

이번에 직지코리아 전시도록이 대영도서관 품에 안긴 데는 재영 큐레이터인 김승민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직지코리아 행사에서 수석 큐레이터를 맡았던 김씨는 귀국 후 친분이 깊은 해미쉬 토드를 만나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전시도록을 전달했다.

대영도서관은 1억 5,000만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도서관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전으로 평가되는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를 비롯해 세계 최고 목판본인 금강경, 구텐베르크 성경 등 역사적인 문서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김호일 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직지의 가치를 다룬 주제전시 도록이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문화외교적으로나 직지의 세계화 차원에서나 큰 의미가 있는 쾌거"라며 "내년 2회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직지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8일 청주 예술의전당과 청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제 1회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는 8일 동안 국내외 관람객 26만명이 몰리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